

돼지열병에 DMZ관광 중단 5개월... 민통선 주민들 “생계 꼭 막혔다”

파주시 “추가 울타리 설치 완료”
정부 “감염 가능성 없어야 가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막으려다 생계 꼭 막혔다.”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관광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내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파주시 안보관광이 중단(지난해 10월 2일)된 지 18일로 140일째다.

파주 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ASF가 발병한 후 확산 방지를 위해 DMZ(비무장지대) 안보관광 중단과 민통선 출입통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완배 파주 통일촌 이장은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5개월째 안보관광을 중단하고 관광통제만 하고 있어 주민들이 심각하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민통선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주민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도 방역 강화대책을 마친 상태에서 정부에 관광 재개를 계속 건의하고 있다.

안승면 파주시 관광과장은 “정부 측 요구에 따라 야생 멧돼지 차단을 위해 지난달 민통선 내 1차, 2차 울타리 외에 관광지역과 감염 위험지역이 분리되도록 울타리(3km)를 추가로 치고, 야생 멧돼지 포획틀도 61개를 추가 설치한 뒤 지난 11일 정부에 관광 재개를 요청해 둔 상태지만 언제 관광이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봉연 파주 해마루촌 농촌체험마을 추진위원장은 “DMZ 관광, 시티투어, 임진강 생태탐방 등의 안보관광이 5개월째 중단되는 바람에 관광객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민통선 주민들이 심각한 생계난에 처해 거리로 나왔게 생겼다”며 “민통선 관광을 무조건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파주 안보관광 지역에 설치된 울타리 내에 남은 야생 멧돼지를 모두

잡거나 죽은 야생 멧돼지의 ASF 검사를 벌여 추가 감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판단 가능할 때 관광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최근 발견되는 민통선 내 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는 모두 울타리 내에서 발견되는 것이어서 차량으로 정해진 장소만 방문하는 민통선 관광이 ASF를 확산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eon@joongang.co.kr